

귀성 28일 오전·귀경 30일 오후 가장 붐빈다

설 명절 3천484만명 이동...설 당일 601만명 최대 긴 연휴로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 작년비 7.7% ↓

올해 설 명절을 맞아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갓길 구간을 개방하고, 버스·철도 등 대중 교통 좌석 공급량을 늘려 원활한 통행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연휴기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천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

설 당일인 오는 29일에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선호하는 귀성 출발 시간은 28일 오전이 20.9%로, 귀경 출발 시간은 30일 오후가 22.6%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였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시·전세버스가 5.3%, 철도가 4.2%, 항공이 3.7%였다.

설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만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2만8천8백원)보다 약 2만원 늘어난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 기간 경부선 등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km)이 개방된다. 또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천112.7km)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2.3%(2만7천850회), 9.0%(약 147만9천석) 늘린다.

29·30일 서울시 등에서는 늦은 밤에 도착하는 귀경객 등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교통량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 장비·자원을 확보하고, 살얼음이 얼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에는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

업정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 하락 21일 마감한 코스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행보를 주시하며 2,510대에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02 포인트(0.08%) 내린 2,518.03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5시30분 기준 2원 내린 1,439.5원을 기록했으며 이후 1,440원대에서 거래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투데이경제



농협광주본부,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

농협중앙회 광주본부는 21일 "최근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회원들로 구성된 행복나눔봉사단과 함께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받고 있는 고령·취약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고 우리쌀로 만든 떡국떡과 사골육수로 구성된 꾸러미 200개를 정성껏 포장해 직접 전달해 드리며 안부를 확인했다.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는 43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중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과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힘쓰며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은 "고령·취약농가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농협광주본부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 내일 입교설명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는 21일 "오는 23일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2025년 청년창업가 입교생(지원기업) 모집을 위한 입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는 다음달 12일까지 45개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예비창업가 포함)이다.

스마트홈 부품, 모바일티 의장·전자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등 지역주력산업 분야와 초격차, 신산업 분야 등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1년 동안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아이템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일괄 지원하는 국내 대표 창업지원 사업으로 광주 지역에서 지난해 (주)에스오에스랩 등 코스닥 상장기업을 배출한 바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으로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과 보조금과 창업코칭,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등 초기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가능하다.

/정은솔기자

광융합산업진흥회-조선대·부산대·인하대 대학원 협약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 박차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조선대, 부산대, 인하대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진흥회와 3개 참여 대학은 이번 학점 교류협약을 통해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국내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 확산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5년간 63억원 규모로 레이저 및 광학 분야의 석·박사 인재를

중견기업 50.4% "올해 투자 계획 없다"

중견기업 설문...불확실한 시장·경영상적 악화가 주 원인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해 11-12월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2025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투자 계획에 관한 물음에 응답 기업의 49.6%는 '있다'고 답했으나 그보다 많은 50.4%는 '없다'고 했다.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38.2%)과 경영 실적 악화(19.6%)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4

9.6% 가운데 작년보다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41.5%에 그쳤으며,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답은 35.8%, 투자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응답은 22.7%로 조사됐다.

올해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중견기업들은 그 이유로 내수시장 부진(40.0%), 경기악화 우려(24.4%), 생산 비용 증가(10.0%), 고금리·자금조달 어려움(7.8%) 등을 들었다.

투자 확대를 계획한 중견기업들은 주력사업 확장(35.7%), 신사업 진출 강화(26.7%), 해외 시장 진출 확대(17.0%), 노후 설비 개선·교체(11.5%) 등의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 가

운데 해외 투자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19.6%에 그쳤다. 국내 설비 투자 계획이 있다는 답은 70.0%,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계획이 있다는 답은 37.0%로 집계됐다.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계 지원 확대(38.0%),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21.6%), 금리 인하(20.1%), 정책금융 강화(8.5%), 노동 등 경영 환경 개선(8.5%) 등이 꼽혔다.

이호준 중견기업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 금융의 문턱을 과감하게 낮추고 노동, 환경, 세제 등 법·제도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 중견기업의 장기 투자 여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